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신동동 344-2 완경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면 2길 6번지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음 1월 17일) 제15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여야 선거구획정 기준안 전격 합의

## 도내 선거구 11개에서 10개로 축소

전주 갑을병 3곳으로 조정  
정읍·고창 등 목일 전망  
김춘진·최규성 의원  
'불꽃' 빅매치 불가피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북은 1석 줄어든 10개 의석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선거구획정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3일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

석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줄어든다. 전북은 기존 11개 선거구에서 1곳이 줄어든 10개 선거구로 줄었다. 정 의장은 늦어도 29일 본회의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산정 기준일을 지난해 10월 말로 설정하는 지역구 10석에 대해 전주의 경우는 갑·을·병 3곳의 선거구로 조정된다. 이어 익산갑을과 군산 김제와 부안 완주·무주·진안·장수 정읍·고창 임실·순창·남원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읍(11만6,326명), 남원·순창(11만4,350명)과 김제·완주(18만3,118명), 진안·무주·장수·임실(10만4,027명), 고창·부안(11만6,375명)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밑돌아 재획정

에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창과 부안이 지역구인 김춘진 의원과 김제완주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최규성 의원이자. 이번 선거구획정에 따라 당내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완주가 포함된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현 박민수 의원과 유희태·안호영 예비후보들 간의 경선에 이은 임정영 예비후보와의 전무도 불가피하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 50여일을 남겨두고 이제야 선거구가 확정됐다"면서 "이제부터는 지역별 입지자들과 의석수 사수를 위한 도내 정치권의 치열한 쟁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자립학교 일방적 학급감축 진행

## 장애아동 학부모 - 교육청간 '불통' 이어져

김승환 교육감과의 면담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속보)전북교육청의 일방적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교육청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2월 23일자 1면)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립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자립학교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학급 감축은 총 4학급(초·중·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1학년 2학년)으로 재배정 대상학생은 23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재단법인 허가 취소로 인한 자립학교 운영 주체가 사실상 사라져 정상적 운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감축 등의 주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설명

회를 지난 22일 실시했지만 해당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분노를 수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이들 입장에선 전북교육청이 학교와 학급배치가 완료된 장애아동들에게 불과 개화 1주일 앞둔듯 타 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일방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이날 김 교육감의 면담을 위해 교육청에 모였지만 만남은 불발됐다. 전북교육청이 김 교육감 집무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2시간여 이어진 면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들은 전주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자체회의를 진행했다. 내부회의를 거친 이들은 전북교육청 관계자와 현재 재배치 대상 23명

학생 전체를 은화학교로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했다. 자립학교 장애아동 학부모대표는 "지체부자유와 청각장애 등으로 장애영역이 다른 동안재활과 선화학교는 재배치 학교에서 제외됐다"면서 "은화학교 시설과 커리큘럼을 보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립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형 기자

도, 탄소산업TF팀 운영

전북도 탄소산업발전TF팀이 23일 본격 가동됐다. 탄소산업발전TF팀은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탄소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구성·운영됐다. 이번엔 구성된 탄소산업발전TF팀은 R&D·인프라 분과, 기업·투자 분과, 창업·인력분과 등 3개 분과로 이뤄졌다. /정영수 기자



선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 60기 신입생들이 23일 오후 국군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가,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전북도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2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전북도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 발령됐다. 지난 1월 두가지 주의보가 동시 발령된 이후 올해도 두 번째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일 오전부터 급격히 증가해 23일 13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154ug/m(주의보 기준치 150ug/m) 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94ug/m(주의보 기준치 90ug/m)가 2시간 이상 지속됐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발령시각 기준으로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중 4단계인 '매우나쁨'(PM10:151 ~ , PM2.5:101 ~ ug/m³)단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 만성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 810만원 미만 권고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만성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C2블록에 조성되는 중흥S클래스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3.3㎡당 810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분양된 같은 만성지구 내 제1공영체 3.3㎡당 평균분양가(815만원)보다 5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3일 최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만성지구 중흥S클래스아파트 615세대(전용 104㎡-312세대, 115㎡-189세대, 123㎡-114세대)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같은 분양가를 제시했다. 분양가심사위원들은 당초 시공업체가 요청한 932만원에서 122만원 이상 삭감해 만성지구 공공주택 분양가 중 가장 낮은 분양가 권고액을 최종 결정했다. /김영재 기자

**PAPER COREA**

사원단지 (15km)  
대만금 (20km)  
군산IC (5km)  
군산시청 (0.7km)  
익산 KTX역 (18km)

2016년 봄  
e편한세상 분양 예정!

세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 오션시티**

**한중 FTA 체결 - 새만금 시대 본격 개막!**

**새만금 시대 명품 복합도시 디 오션시티의 시대가 열린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수혜지 군산 디 오션시티의 첫 사업 푸르지오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톱 브랜드 명품단지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문화, 쇼핑, 주거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디 오션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다

디 오션시티(The Ocean City)란? 새만금의 배후도시 군산에 들어서는 초대형 명품 복합도시입니다.

- | 교육가치 | 최고의 교육시설 집중 배치(유치원 2개교, 초·중 2개교, 중등 1개교 등)
- | 미래가치 | 글로벌 자유 무역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의 배후 수혜지로 Top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조성되는 명품단지
- | 생활가치 | 편리한 쇼핑·문화시설 및 유망형 스트리트몰 조성(예정)
- | 자연가치 | 근린공원(1개)과 어린이공원(2개) 등 압도적 녹지로 건강 및 힐링 단지 조성(예정)
- | 입지가치 | 군산IC 및 새만금, 군산시청, 군산역 인접으로 전국적 사통팔달의 현실화

\*본 제자리에 대해서는 30여종의 이벤트를 즐기 위한 2016년 3월 1일부터